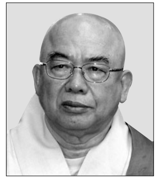
일 주 문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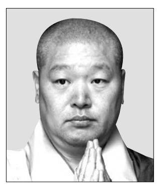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3월 12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서울대 특별강연회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3월 19일 서울대에서 '젊은 날의 화두-생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연다.

수원구치소 자장면 보시

남원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은 3월 12일 수원구치소를 찾아 직접 자장면을 만들어 보시했다.



〈내 안의 불교찾기〉 출간

대구 송림사 주지 혜성 스님은 불교방송 신행 상담을 진행하며 쓴 글을 모은 〈내안의 불교찾기〉를 펴냈다.

사찰음식경연대회 대상

울진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은 3월 6~9일 열린 '2014 사찰음식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불교문화학과 장학금 쾌척

이재동 대우STI 대표는 3월 10일 동명대(총장 설동근)에 불교문화학과 장학금 및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쾌척했다.

대불련, 대학생 템플스테이

신경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3월 28일 충주 석종사에서 2014년 대불련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재선출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사진〉는 3월 12일 그랜드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 2층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상임대표로 만장일치 재선출됐다.

총 168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대표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 공창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이희구 (주)지오영그룹 회장 대표,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장실 국회의원, 성상철 서울의대 교수, 김태형 전 국방장관, 박준현 삼성자산운용 사장이, 감사에는 정구정 세무사, 손수일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화쟁의 정신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 구성된 임원진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출·재가 유능한 인재 양성 나설 것"

연봉장학회 창립한 이사장 태현 스님

11일 장학회 창립법회 봉행
출·재가자 연구비·학비 지원
"인재불사 동참해주길" 당부

"'인재불사가 중요하다'고 다들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와 한 장 대들보 하나를 세우는 건축불사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덕이 크다는 이유겠지요. 하지만 한국불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인재불사를 해야 합니다. 1700년의 한국불교를 계승하여 새로운 불교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3월 11일 연봉장학회를 창립한 연봉장학회 이사장 태현 스님(경기 광주 수미산 불국사 회주, 사진)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1962년 故 지관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태현 스님은 평생을 수행과 교화에 힘써왔다. 도심포교에도 힘써 서울 관악구에 육바라밀사와 경기도 광주에 수미산 불국사를 창건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원력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다. 바로 불교인재의 양성이었다. 이를 위해 태현 스님은 체계적인 종합 수련원을 창립해 불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현실 역량있는 인재를 키우려 했다. 하지만 시절 인연을 만나지 못했고, 다시 원력을 모아 장학회를 만들어 회향한 것이다.

창립을 알린 연봉장학회는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장학위원회(이사 2명, 각 교육기관 교수진 5명, 수미산 불국사 신도대표 1명, 후원회장 1명)를 구성하고, 연봉장학후원회도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학선발은 매년 10월 불교계 언론을 통해 선발공고를 하고, 각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받아 본 연봉장학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장학금, 연구비 지원은 △조계종 사찰 재적신도 자녀 및 종립학교 재학생 학비지원(연간 1000만원) △승가대학(원) 재학학인 연구비 지원(연간 1000만원) △불교학연구 및 종책연구자 지원(연간 각 1인 500만원) △외국인 승려 학비 지원(연간 1인 300만원) 등 항목으로 분류돼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재단법인으로의 전환도 계획하고 있다.

"법인화는 여러 가지 설립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설립조건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회의 재단법인은 지방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기본자산과 장학지금 실적 등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년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연봉장학재단'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태현 스님은 연봉장학후원회에 대한 불자들의 동참도 당부하기도 했다.

"연봉장학회는 연꽃의 향기처럼 은은하게 많은 수행자들과 불교인재들에게 희망이 되려 합니다. 모래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래에 시멘트를 섞으면 건실한 건물이 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정성을 모은다면 한국불교를 튼튼하게 이어갈 인재불사가 될 것입니다. 연봉장학회는 여러 불자들의 후원과 정성을 기왓장과 대들보 삼아 인재 육성의 산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일불교協 사무총장, 총지종 법등 정사 임명

자승 스님 12일 임명장 수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에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가 임명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3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사무총장 법등 정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자승 스님은 "역사문제로 얽혀 있는 한일 양국관계를 해결하는데 불교계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법등 정사는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위해 4월 중순에 이사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과 사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자승 스님이 법등 정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소외된 종단과 소통하고 종교화합에 최선 다할터"

이이재 의원, 3월 14일 태고종 도산 스님 예방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종교위원장 이이재 의원(강원 동해시 삼척시)이 3월 14일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예방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종단들과 소통하고 종교화합을 이루는데 종교위원회가 역할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12일 직능단체와의 원활한 연계망 구축과 정책개발을 위해 직능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이재 의원이 종교위원장을 맡았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정부나 국회가 한국불교 전체를 안고 가야 한다. 앞으로는 소외된 종단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새누리당 종교위원장 이이재 의원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동국대 부처님, 새 봄 맞이 단장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3월 12일 팔정도 청동여래입상 보수불사를 위한 고불식을 거행했다. 고불식은 김희옥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법타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헌향, 축사, 고불문, 반야심경 봉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국대 청동여래입상은 1964년 총학생회가 건립을 추진, 조각가 김영중 선생을 통해 조성됐다. 이후 반세기에 걸쳐 동국대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수불사는 무형문화재 이진형 불상조각장이 맡을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인환 스님, 후학위해 1억 원 기부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3월 14일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동국대 원로교수인 인환 스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경국사 한주 인환 스님은 3월 14일 오전 11시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방문해 제2건학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불교학 연구를 위한 한국불교학진흥기금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는 인환스님은 최근 학교로부터 받은 소식지를 통해 동국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걸 느끼고, 또 한 번의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환 스님은 "큰 돈을 기부하긴 어렵지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마음을 내고자 한다"면서 "돌아갈 때 재물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에 사용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학교에 소중한 정재를 보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스님의 큰 뜻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대학, 계속 발전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혜철 스님, 명예 옥천소방서장 위촉

충북 옥천소방서(서장 배달식)는 3월 14일 옥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봄철 화재예방분위기 확산을 위한 명예 소방서장으로 혜철스님(대성사 주지, 태고종 홍보부장)을 위촉했다.

명예 소방서장 위촉은 옥천소방서가 지난해 2월 14일 개서한 이래 처음이며, 봄철 화재예방대책 기간 중 석가탄신일이 포함되어 있어, 사찰관계자 등에 대한 화재예방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식 옥천소방서장은 지난 2월 20일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소방활동을 대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과 홍기엽氏를 옥천소방서 119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한바 있다. 김주일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 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